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계시와 역사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2부 '현대신학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5장 '계시와 역사', 약 89–98쪽 (다음 장이 99쪽 6장으로 시작)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 장의 '이성' 논의에 이어, 이성이 분석하려는 재료인 '역사'로 넘어간다. 먼저 성경 신앙은 영원한 일반 진리가 아니라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실제 사건 위에 서 있고, 이 점이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함이라고 밝힌다. 그런데 현대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임은 사건은 말씀이 있어야 이해되고 전달된다고 답한다. 이어서 리츨·쿨만·판넨베르크·바르트, 그리고 그 뿌리인 레싱과 칸트를 차례로 살핀다. 그들 모두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전제했기 때문에 역사와 신앙 사이에 도랑이 생겼다고 진단한다.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성의 최종 기준으로 삼으면 도랑은 사라지고, 계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행위와 말씀'이 함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절별 정리

📜 1. 이성과 역사: 잣대와 재료

앞 장에서 프레임은 이성을 '규범적 관점'으로 다뤘다. 규범적 관점은 무엇이 옳은지 재는 잣대의 측면을 말한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는 이성 대신 '역사'를 내세워 이성의 권위를 줄이려 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이성을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생각해 보자. 기하학은 '공리'(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출발 명제)에서 논리적으로 끌어낸, 언제나 참인 진리의 체계다. 반면 기독교는 역사 속 사건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 계시는 '합리적'이라기보다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프레임은 이런 이성

(규범적 관점)이고, 역사는 이성이 이해하려는 가장 넓은 '상황'이다. 다만 이성은 스스로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한다.

1. 역사를 논하는 일 자체가 이성을 쓰는 일
2. 이성을 기하학식 체계로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
3. 이성은 잣대, 역사는 이성이 다룰 재료
4. 이성은 버릴 게 아니라 말씀 아래 둘 것

📜 2. 계시는 역사이고, 역사는 계시다

'역사'라는 말은 두 가지를 뜻한다. 하나는 실제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둘 다 기독교에 중요하다. 사건은 신앙의 내용을 이루고, '특별계시'(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특별히 주신 말씀)는 그 사건을 설명한다. 그래서 프레임은 계시와 역사를 서로 맞물린 것으로 본다. 성경 전체는 창조·타락·구속으로 요약되고, 이는 다시 여러 사건으로 이어진다. 엿새 창조, 사탄의 유혹과 타락, 저주와 약속, 홍수, 아브라함 언약, 그리스도의 삶·죽음·부활·승천, 오순절과 복음 전파가 그것이다. 재림과 최후 심판 같은 미래 사건도 약속으로 계시된다.
프레임은 2장에서 말한 성경 하나님의 세 가지 독특함(삼위의 절대 인격,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언약의 주)에 '역사의 중심성'을 하나 더 보탠다. 비교 대상은 불교다. 붓다가 깨달은 것은 '삶은 고통'이라는 일반 진리여서, 붓다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참이다. 그래서 식견 있는 불교도에게 기적 이야기는 오히려 당혹스럽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외처럼 보인다. 그러나 프레임은 두 종교가 역사를 주로 모세·무함마드 같은 '교사'를 인용하는 데 쓸 뿐, 구원의 역사적 근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두 종교에 예외적인 면이 있다면 성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1. '역사' = 사건 + 그 사건의 설명
2. 사건은 신앙의 내용, 특별계시는 그 설명
3. 창조·타락·구속이 성경 내용의 뼈대
4. 역사 중심성은 성경 신앙만의 독특함

📜 3. 사건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니, 자유주의 전통의 많은 신학자가 “계시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프레임도 그 주장의 일리를 인정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찬양의 주제로 삼는다. 신약은 구속 사건을 하나님 사랑의 정의이자 가장 중요한 계시로 내세운다. 그러나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성경에는 '말씀–사건–말씀'의 패턴이 있다. 선지자가 미리 말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이 다시 그 사건을 풀어 준다. 사건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한 번 일어난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에게 사건을 알리고 의미를 설명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 구속 사건이 그것을 전할 증인 없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프레임은 보수 신학의 날카로운 비판자였던 제임스 바(James Barr)도 같은 지적을 했다고 소개한다. 바에 따르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 사람의 행위와 말이 함께 엮여 진행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후 묵상으로 돌리면 본문을 멋대로 합리화하는 셈이고, 성경이 그리는 인격적 하나님의 모습도 손상된다. 프레임의 결론은 두 가지다. 성경은 행위와 말씀 중 어느 하나를 앞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는 성경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해석에 '간섭'하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의 행위도 분명히 하나님을 계시한다
2. 사건은 말씀이 있어야 이해되고 전달된다
3. 성경의 패턴은 말씀–사건–말씀
4. 성경은 행위와 말씀 중 하나를 앞세우지 않음
5. 행위 우선론의 동기는 해석의 자율권

> **시편 106:2**
>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찬양의 주제임을 보여 줌
>
>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 **시편 145:4**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45:12

하나님의 능한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시임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시편 150:2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함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요한복음 3:16

아들을 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8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랑의 확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4-5

긍휼과 사랑이 '살리신 행위'로 나타남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한일서 3:16

목숨을 버리신 사건으로 사랑을 앎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요한일서 4:8-10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이 사랑의 정의

>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 사랑은
>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계시록 1:5

피로 해방하신 일이 사랑의 표현임

>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위 구절들은 '하나님의 행위가 계시한다'는 쪽, 곧 프레임이 인정하는 쪽의 근거다. 프레임은 이 구절들을 행위만 계시라는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를 다른 것에 우선시하지 않는다."

📜 4. '하나님의 행위' 신학자들: 리츨, 쿨만, 판넨베르크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 내내 많은 신학자가 계시된 말씀보다 역사와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했다. 프레임은 리츨, 쿨만, 라이트(G. Ernest Wright)를 비롯한 20세기 중반 '하나님의 행위' 신학자들, 판넨베르크와 그 학파를 꼽는다. 리츨은 역사가가 재구성한 '역사적 예수' 위에 신학을 세우려 했다. 그에게 권위 있는 것은 사건 자체나 사건에서 나온 진리가 아니라 역사가의 '가치 판단'이다. 판넨베르크는 계시를 이성으로 파악한 보편 역사로 보고, 이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려 했다. 리츨과 비슷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기준점으로 삼아 성경의 자기 해석을 더 진지하게 다루려

'해석'에 더 큰 권위를 준다. 프레임의 진단은 하나다. 이들 누구도 인간 지성의 자율성을 반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 그것을 전제했다. 그들에게 역사는 자율적 인간 사고가 해석한 사건일 뿐이다. 쿨만은 결국 역사에서 한 발 물러나 '신앙'으로 옮겨 간 셈인데, 그 신앙과 사건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리처드 멀러가 “신학은 역사의 한 형태”라는 논지의 복음주의판을 내놓았다고 소개하고, 그가 신학 방법에서 성경에 마땅한 역할을 주지 않는다고 불편해한다.)

1. 리츨: 권위는 역사가의 가치 판단에
2. 판넨베르크: 이성으로 본 보편 역사가 계시
3. 쿨만: 사건보다 신앙의 해석이 결정적
4. 공통점: 인간 지성의 자율성을 전제
5. 행위를 높인다며 실제로는 해석을 높임

📜 5. 바르트의 두 가지 역사

바르트는 역사를 두 독일어 단어로 나눴다. '히스토리에'(Historie)는 세속 역사가가 자율적인 역사 연구 기법으로 다루는 사건이다. '게쉬히테'(Geschichte)는 그와 다른 차원의, 구속의 의미를 지닌 역사다. 바르트는 쿨만처럼(리츨·판넨베르크와 달리) 신앙을 히스토리에 위에 세우기를 꺼렸다. 그러면서도 성육신·속죄·부활이 사건으로서 중심이라는 점은 인정했기에, 이 사건들을 게쉬히테로 설명했다.
프레임은 바르트의 의도를 이렇게 읽는다. 구속 사건을 세속 역사가가 마음대로 믿거나 불신하는 영역에서 떼어 내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게쉬히테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고, 역사 연구 없이도 알려져야 한다. 프레임은 이것이 매우 기이한 개념이라고 본다. 그러니 바르트가 이 사건들이 시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바르트는 부활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다고 분명히 믿으면서도, 그 사건을 게쉬히테로만 설명되는 더 높은 실체의 표지로 제시한다. 프레임은 이 문제의 판정을 바르트 전문가에게 맡기면서도 원인은 분명히 짚는다. 바르트가 지적 자율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히스토리에에서는 세속 학자에게 완전한 비판의 자유를 주고, 구속 진리는 따로 보호 구역에 둔 셈이다. 프레임의 대안은 간단하다. 자율적 역사학의 정당성 자체를

어디에도 바르트식 구분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인 사도들의 증언 때문에 성육신·십자가·부활을 믿는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거룩한 영역/세속 영역'을 나누는 여러 시도도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한다. 중세의 자연·은혜 구분, 루터의 두 왕국론, 성경 권위를 '믿음과 실천'에만 한정하려는 시도, 클라인의 성·속 구분이 그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1. 히스토리에(실증 역사) vs 게쉬히테(구속의 역사)
2. 구속 사건을 세속 비판에서 지키려는 구분
3. 시공간에서 떼어 낸 '역사'는 기이한 개념
4. 원인은 바르트도 자율성을 받아들인 것
5. 역사는 하나, 사도의 증언으로 믿는다

> **고린도전서 15:1-2**
>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 굳게 붙드는 것이 구원의 길임. 사건은 사도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
>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 **고린도전서 15:11**
> 사도들이 함께 전했고 성도가 그대로 믿었다. 사도 증언이 믿음의 통로임
>
>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 6. 레싱의 도랑과 칸트의 두 세계

이 논의 전체는 레싱(1729–1781)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영과 능력의 증명에 관하여』에서 '역사의 우연적 진리'와 '이성의 필연적 진리' 사이에 '크고 추한 도랑'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임은 일부를 인정한다. 2+2=4 같은 필연적 진리는 역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역사 연구가 수학 같은 확실성을 주지 못하는

도랑이 되었다. “그렇게 불확실한 역사 사건을 근거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질문 앞에서 앞의 신학자들은 각자 다른 길을 택했다. 리츨과 판넨베르크는 자율적 역사학으로 도랑을 건너려 했다. 쿨만은 '신앙'으로 메우려 했다. 바르트는 도랑이 없는 새로운 역사를 따로 세웠는데, 그 영역에서 역사학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프레임은 바르트가 칸트의 노선을 따른다고 본다. 칸트에게 시공간의 일상 경험 세계는 '현상계'다. 이것은 자율적 이성이 알 수 있는 세계이고, 심지어 이성이 그 기본 구조를 만든다. 반면 '물자체'의 세계는 이성이 붙잡을 수 없지만 일종의 '신앙'으로 믿는 세계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지만, 믿음이 주는 유익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식이다. 바르트의 히스토리에는 칸트의 현상계와, 게쉬히테는 물자체의 세계와 닮았다. 둘 다 역사 연구에서 이성의 자율성에 관해서는 레싱에게 동의한다. 그 결과 시공간의 역사를 세속주의자에게 넘겨주고, 신학은 역사학의 족쇄가 풀린 다른 영역에서 말하게 되었다.

1. 레싱: 우연한 역사와 필연적 이성 사이의 도랑
2. 일부는 맞다: 역사는 수학식 확실성이 없다
3. 문제는 자율 이성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은 것
4. 리츨·판넨베르크는 학문으로, 쿨만은 신앙으로
5. 바르트는 칸트처럼 역사를 세속에 양도

📜 7. 해법: 자율성을 내려놓으면 도랑이 사라진다

역사 연구의 자율성을 포기하면 도랑은 사라진다.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 모든 논란을 끝낸다면, 구속 역사의 진리는 '그럴 법한 것'(개연성)에 머물지 않고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성의 최종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에서 출발하는 역사 연구는 성경의 주요 구속 사건에 대해 확실성을 얻는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균형을 잡는다. 건전한 인식론을 가진 신자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 해석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성령의 주권적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은 역사가 본래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또 신앙에 확실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예수가 실제로 살았는지, 부활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제자에게 이 사건들은 다른 모든

다루는 행위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사건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의 내용을 연구한다.

1. 자율성을 버리면 레싱의 도랑은 사라진다
2. 하나님의 증언이 확실성의 최종 기준
3. 일부 불확실성은 해석의 문제이지 역사 탓 아님
4. 부활의 확신은 다른 확신을 재는 기준
5. 계시 = 행위와 말씀, 말씀 아래 사건 연구

"구속 역사의 진리는 확실하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특별계시
자연을 통한 일반적인 앎과 달리,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말씀과 사건으로 특별히 주신 계시. 지금은 성경에 담겨 있다.

규범적 관점 / 상황적 관점
프레임의 관점주의 용어. 같은 대상을 '잣대(무엇이 옳은가)'의 측면과 '주어진 현실(무엇이 일어났는가)'의 측면에서 보는 것.

지적 자율성
인간 이성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스스로 최종 판단자가 되겠다는 태도. 프레임이 이 장 내내 문제 삼는 뿌리다.

모든 생각과 연구가 출발할 때 이미 깔고 있는 기본 믿음.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 전제로 삼으라고 말한다(반틸의 전제주의).

공리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다른 명제를 끌어내는 출발점. 기하학이 대표적이다.

히스토리에(Historie) / 게쉬히테(Geschichte)
바르트의 구분. 앞은 역사학이 검증하는 실증 역사, 뒤는 구속의 의미를 지닌 다른 차원의 역사.

레싱의 도랑
확실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과 확실해야 할 신앙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틈이 있다는 주장.

현상계 / 물자체
칸트의 구분. 앞은 우리 이성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 뒤는 이성이 알 수 없는 '그 자체의' 세계.

개연성
'아마 그럴 것이다' 수준의 확실성. 프레임은 구속 사건이 개연성이 아니라 확실성의 문제라고 말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 신앙은 일반 진리가 아니라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실제 사건 위에 서 있다.

- 리츨·쿨만·판넨베르크·바르트의 문제는 모두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전제한 데 있다.
- 레싱의 도랑은 자율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성의 기준으로 삼을 때 사라진다.
-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사건을 연구하고, 사도의 증언으로 구속 사건을 믿는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5편 · 계시를 뒤집은 현대신학 · 이성·역사·체험이 말씀 자리에 앉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